총회 20년 만에 한국군종목사단장 배출
군선교 새 지평 연다



본교단이 약 20년 만에 두 번째 한국군종목사단장을 배출했다. 시냇가푸른나무교회 군파송 김광식 목사(해군 대령 · 사진)가 제35대 한국군종목사단장에 취임하면서 교단의 군선교 사역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군선교 비전을 제시하며 군선교 현장의 복음 전파와 한국교회의 동참을 강조했다.

이날 김삼환 한국기독교군종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군선교는 현역 장병 45만 명뿐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라며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단과 기관을 초월한 연합과 협력을 당부했다.

본 교단 총회장 이종만 목사도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단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총회장은 장병들의 구원과 결연 사역의 결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이임하는 전임 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김광식 목사의 새로운 사역을 축복했다.

김광식 목사, 제35대 한국군종목사단장 취임
김종준 목사 이어 교단 역사상 두 번째

한국군종목사단은 지난 10월 28일 서울 영락교회 드림홀에서 제35대 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고, 군선교 활성화와 한국교회와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신임 김광식 단장은 앞으로 육 · 해 · 공군 및 해병대 군종목사 250여 명과 민간 군선교사 600여 명이 참여하는 군선교 사역을 이끌며, 군종목사단과 한국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군선교 환경 속에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을 섬기고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선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장병과 지역교회를 연결하는 결연 사역을 활성화하고, 전역 이후에도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김광식 목사는 2002년 해군 중위로 임관한 이후 해군작전사령부와 해병대 군종장교, 국방부 군종정책과, 해군본부 군종실 등을 거쳐 해군본부 군종실장을 역임하는 등 군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 왔다.

특히 이번 취임은 약 20년 전 김종준 목사에 이어 본 교단에서 두 번째 한국군종목사단장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교단 군목이 한국군종목사단의 대표를 맡게 됨에 따라 교단의 군선교 사역과 초교파적 협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총회와 군경선교부(부장 조일구 목사)는 김광식 목사의 취임을 기념하고 군선교 사역을 위해 감사예배를 오는 12월 10일(목) 낮 12시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 드릴 예정이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종교개혁 정신 되새겨
한국성결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종교개혁 509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성결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장 임흥근 목사 · 이하 성미준)이 지난 10월 20일 성결대학교 아립국제회의실에서 종교개혁 50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인 '오직 성경' 과 복음의 본질을 되새겼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앙과 신학을 재조명하고, 오늘날 성결교회가 지향해야 할 복음 중심의 신앙과 거룩한 삶의 의미를 되짚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목회자와 학생 등 25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의장 임흥근 목사의 사회로 찬송과 사무총장 김동환 목사의 기도에 이어 본 교단 총회장 이종만 목사가 '복음은 위대합니다'(롬 1:16~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세미나는 김동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임흥근 목사의 환영사와 성결신학원 이사장 김성진 목사, 성결대 총장 정희석 장로의 축사가 있었다.

주제강연은 목원대학교 권진호 교수가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서'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권 교수는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발견한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적 과제를 함께 되새겼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결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을 재확인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제23회기 원로 · 공로장로회 추계수련회 개최
화성 궁평항 · 고온항 · 백미항 일원에서 친교와 영성 나눠



원로 · 공로장로회(회장 정 완 장로)는 지난 1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과 고온항, 백미항 일원에서 제23회기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원로 및 공로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신앙을 돌아보고, 그동안 교회와 교단을 위해 헌신해 온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착예배는 회장 정 완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회장 강환준 장로의 기도와 부회계 한은진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심상훈 목사(고온교회)가 '꼭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총무 이광진 장로의 광고와 수석부회장 이철구 장로의 폐회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궁평항과 고온항, 백미항 일원을 둘러보며 자연 속에서 교제와 친목을 나누고 회원 간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성결대 총동문회, 모교 발전 · 장학사업 후원운동 본격화
11월 29일 '후원 주일' · 12월 8일 '후원의 날' 추진



성결대학교 제43회 총동문회(회장 이정길 목사)가 모교 발전과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원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총동문회는 지난 10월 20일 임원회의를 열고 전국 교회와 동문들이 함께하는 후원사업을 비롯해 정기후원 확대, 동문 간 소통 강화 등 주요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11월 29일을 '성결대학교 후원 주일'로 정하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성도 1인 1만 원 후원헌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후원운동은 교회 규모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교의 발전과 다음 세대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총동문회는 각 교회가 주일예배 중 특별헌금 순서를 마련하거나 교회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금된 후원금은 모교 발전과 장학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성결대학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교단 관계자, 후원자, 학교 구성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감사예배와 총동문회 사업보고, 비전 발표,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축하공연과 교제의 시간도 마련해 동문 간 화합과 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총동문회는 일회성 모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CMS를 통한 정기후원 운동도 확대한다. 매월 1만 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교회와 동문,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동문회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해 동문회 소식과 장학 · 후원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성결대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재학생과 졸업생, 학교와 동문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동문회는 '함께하는 동문, 더 빛나는 성결의 내일'이라는 취지 아래 이번 후원운동이 교단과 모교, 동문 간 협력을 확대하고 성결대학교의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후원 및 행사 관련 문의는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050-6095-1049)으로 하면 된다.

성결포럼, 제134차 성결포럼 & 성촉회 개최
영적 울림과 삶의 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져



성결포럼(총재 정부기 목사 · 사진)은 지난 10월 26일(월) 오전 10시 45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예미향교회에서 제134차 성결포럼 & 성촉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촉회는 1부 예배와 2부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박찬영 목사가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한 사람'(마 4:16~17)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으며, 이어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는 '100년의 교리를 넘어,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내기'(요삼 1:2, 엡 2:10)라는 제목으로 정부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성결포럼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전 10시 45분 예미향교회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목회, 선교, 경제, 신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말씀과 지식을 나누며, 교회와 목회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통찰을 나누고 있다.

[성결포럼 제공]



